

6-30-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시편 11:4

말씀제목: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눈꺼풀로 그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첫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신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고 계시고 그의 눈꺼풀로 그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데도다.”(사 40:22-23)

그후 약 천 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창 6: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백 이십 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후에 계속해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습니다(창 6:5-6)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단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단 한사람도 남기시지 않고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함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창 11:4)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 다 멀리
흠으셨습니다.

그후 세월이 지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 날 더울 때에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서 있더라.”(창 18:1-3,20-22)

주님과 함께 나타났던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롯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향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습니다(창 19:23-25)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소돔의 죄가 어떤 죄들인지에 대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겔 16:48-50)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소돔의 죄에 대하여 보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온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눈꺼풀로 자세하게 보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감찰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한 주, 7년 대 환란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대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소돔에 있던 유일한 의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대 환란 전에 있게 될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그러나 대 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을 감찰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 스카랴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너희 민족들이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이,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 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로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사 34:1-4)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슥 14:1-3)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계 19:11,15) 아멘! 할렐루야!